

(장려상) 변신 : AI의 꿈

컴퓨터공학과 강지웅

원작

카프카 <변신>

기획 의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아침에 눈뜰 때마다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해서 더 바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지겹고 힘이 들까?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 곤충이라면...' 하며 상상해본 적이 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그레고르도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려 당황하고 절망하면서도 출근하려는 그레고르의 모습에는 어딘지 평안함을 느낀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거대한 벌레로 바뀌어버린 그레고르의 모습에 가족조차도 벌레처럼 하대하고 외면하는 상황들이 결국 그레고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과연, 벌레로 변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 그레고르는 남은 가족보다 못한 삶이었을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해방된 것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카프카의 <변신>을 AI가 만연한 세상에 대입하여 미래에 AI가 우리 삶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겠지만 끝이 나지 않을 AI와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 완전한 공존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느낌에 눈을 뜬다. 자신의 몸이 하룻밤 사이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변화를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설득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으며, 며칠 동안 AI로서 끊임없이 일해 가족을 위한 부를 축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레고르의 가족은 그를 단순한 노동 수단으로만 여기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은 채, 그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레고르는 이러한 태도에 상처를 받지만, 자신이 AI라는 사실에 잘못된 감정이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며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다시 가족을 위해 일하던 어느 날, 그의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마비되어 버렸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레고르의 부재는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그가 가져다주던 부와 편리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단면적으로는 AI의 발전을 예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AI와 인간과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과연 AI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감정과 노력이 단순한 수단으로만 여겨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떤 행동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오후 2시입니다. 기상 알람을 시작합니다."

정오를 훨씬 넘긴 시간, 귀에 박히는 음성과 알람 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찌뿌둥함을 느낀 그레고르는 잠에서 깬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으려 하지만, 어쩐지 인의적인 팔의 움직임에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그레고르. 그의 몸은 하룻밤 사이에 AI 로봇으로 변해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레고르는 자리에 누워 생성형 AI '너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신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요즘 인공지능 로봇의 수명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사례'... 너드는 그럴듯한 답변을 늘어놓지만, 로봇이 된 현실에 직면한 그레고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방을 바라보다 그레고르는 책상 위에 쌓인 개발 관련 책들을 보게 되었다. '잠깐, 내가 이제 AI가 되었다면, 이 모든 공부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방 밖에서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대체 언제 일어날 거니! 제발 일어나서 공부하고 부지런히 좀 살라고 몇 번을 말하니!" 부모님의 타박에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참지 못하고 그레고르가 방을 박차고 나섰다.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닭살이 돋을 만큼 싸한 느낌이 들었다. "그레고르, 너 맞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니?" 부모님과 여동생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반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탓에 두려웠지만 자신의 변화를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물론 놀라셨을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설득에 점점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AI 로봇이 된 그레고르의 기동성과 효율성은 다른 어떤 AI 로봇보다 뛰어났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수많은 분야에서 활약했다. 서빙, 요리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이동형 장치와 결합한 배달서비스까지. 자주 거리를 돌아다니는 특성상 그 과정에서 범죄자의 몽타주를 기억하고 찾아 범죄자 추적, 검거에도 도움을 주곤 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소한 일들 또한 도맡았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는 배터리만 갈면 졸림도, 배고픔도, 아픔도 느끼지 않았다. 가족은 그레고르의 노력으로 얻은 부를 즐겼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가족에게 여행을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더 이상 너에게 실망할 일을 만들지 마렴. 게다가 너는 힘들음을 느끼지 않잖니? 이제 부품을 교체할 때가 되었나 보구나."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곧 그레고르의 몸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 도구로 여겨지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잠깐, 나는 AI잖아? 감정을 느낄 수 있나? 그레고르는 혼란에 휩싸였지만, 그는 다시 가족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전과 다른 시스템의 잦은 문제에 이상함을 인지했지만, 별문제가 아닐 거라 판단한 탓이었을까. 어느 날 그의 내부 시스템은 과부하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상태에 빠졌다. 집을 향해 그레고르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 마지막 여정이 된 것이다. 가족들은 며칠 동안 그로부터 오던 신호가 끊긴 것을 알아차리고, 결국 시스템 점검을 통해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오빠 없으면 어떡하죠? 뭐 먹고 사냐고요!" 그들의 슬픔은 가족 그레고르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부를 가져다주던 존재의 부재에 두려워하고 슬퍼했다.

AI가 되어버린 그레고르는 결국 수단이고 하위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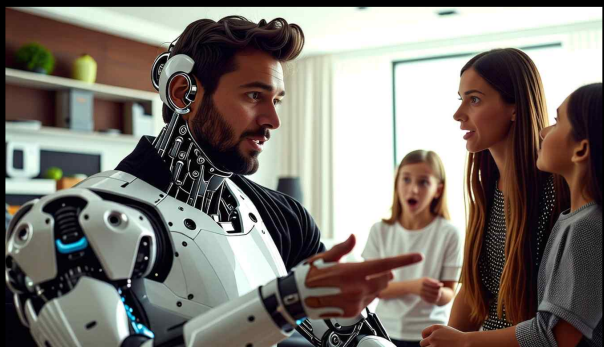
작품의 기대 효과

단면적으로는 미래 AI 로봇은 우리 삶에 녹아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레고르는 로봇으로 변신하면서 그는 더 이상 피로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고민은 인간과 AI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학습된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경계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가족이 그레고르를 노동 도구로만 이용하는 부분은 인간의 욕심과 기계를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태도를 비판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족이 AI 로봇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가족이 아닌 새로 만든 시스템의 사람같은 동반자 AI라면?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휴대전화를 찍던 화면, 로봇으로 바뀐 그레고르의 팔이 들어오면서 몸이 로봇으로 바뀐 사실을 깨닫는 그레고르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꿈인가? 어떻게 내가 로봇이 될 수가 있지?”
#2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버린 현실이 오히려 좋은 기회임을 알아차린 그레고르, 숨길 수 없는 웃음을 보인다.
#3		당황함과 놀라움을 보이는 가족. 그레고르는 자신이 로봇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설득한다.

#4		<p>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던 그레고르, 매정한 가족의 태도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시청자 또한 그의 감정에 동요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묘하고 슬픈 배경 음악과 줌인.</p>
#5		<p>결국 끝까지 가족의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한 그레고르는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다. 가족과 다정히 대화하는 엑스트라의 모습과 대비시킨다.</p>
#6		<p>그레고르의 죽음을 확인하지만, 그레고르의 죽음이 아닌 부의 상실로 인해 슬퍼하는 가족들.</p>